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중동전쟁, 결국 트럼프가 끝내야

협상 여지 남겨두고
이스라엘 간접 지원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사태는 이스라엘의 도발로 시작했으나 결국 미국 이 나서야 끝낼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 옵션은 외교적 해결, 미국의 직접 참전,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등이 있다.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모두 준비가 덜된 상황이다. 삼각 협상 대상국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 협상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직접 참전은 미국 내 여론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반트럼프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고 해외분쟁에 개입한다면 견잡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직접 참전 대신 이스라엘을 간접 지원하거나 아예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적 협상과 이스라엘 간접 지원 사이의 제3의 방법을 찾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주택가에 떨어져 큰 피해를 냈다. [로이터]

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질문엔 “말하고 싶지 않다”며 회피했다.

이 발언 직후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혔다. 여지를 남겨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은 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묵인했으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막았다.

신정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할 경우 협상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VA 관티코 FBI 훈련소 이전 추진

연방당국이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관티코에 위치한 연방수사국 훈련소(FBI National Academy·사진)를 알라배마로 이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버지니아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FBI 훈련소는 지난 1972년 해병대 사령부 기지 내 547에이커 부지에 시설을 마련해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FBI 요원을 비롯해 미국의 여러 연방 정부 법집행기관 요원들을 대상으로 10주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훈련소를 거쳐간 요원은 5만6천여명에 이른다.

덴 본지노 FBI 국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가 알라배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티 브리트(공화, 알라배마) 연방상원의원과 토미 터버빌(공화, 알라배마) 연방상원의원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의 주류 언론은 이들이 이미 지난 4월 알라배마 헌츠빌에 위치한 FBI 시설과 부지를 둘러보고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는 “관티코는 FBI가 훈련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며 “연방법무부와 FB,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가 이같은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과 마크 워너(민주,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파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선거 때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연방정부 부서를 옮겨가려한다”면서 “연방당국은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에 나선 애비게일 스펀베르거(민주) 전 연방하원의원은 “과거 중앙정보국(CIA) 요원 출신으로서, 워싱턴DC에서 불과 36마일 떨어진 관티코의 더할나위없는 입지조건을 무시하고 너무 먼 곳으로 이전하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김옥채 기자

이민자 50년 만에 감소 가능성, 성장 동력 줄어

WP “3월 이후 100만명 이상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여파로 최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싱크탱크 중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이민자 숫자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

연방의회 of 조당적 기관인 의회예산처(CBO)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이민규제가 심했던 2019년에도 이민자 수는 41만5000명 증가했으나, 현재의 이민단속 강도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은 또한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이민자가 계속 순증가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이후 이민 노동자 수가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한 이유는, 2020년 이후에도 연간 100만명에서 330만명의 순이민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이민자가 차지하는 노동인구 비율은 2024년 19%로, 최근 50

년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이민 순감소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 농업 등은 이민자 노동력 의존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 동력을 상실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 수입 부족으로 인한 장

기 불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인정하고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광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매우 유능한 숙련 근로자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그들의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도 농장과 식당의 단속금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정,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14 ~ 7/18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불체자 체포 메디케이드 정보 활용

보건부, 이민당국에 자료 넘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건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

이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DHS 측은 54분 동안 CMS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HS가 확보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DHS 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워싱턴 DC 등이다. 이중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에 가입한 불법체류자의 단속 가능성도 커졌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들에 메디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실은 DHS가 이번 남가주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에 CMS 가입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재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 스피드 카메라 가동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286번)의 포프스 헤드 로드와 버크 센터 파크웨이 공사구간에 스피드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은 7월14일까지 경고

장만 발부하지만, 7월15일부터는 최대 1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를 10-14마일 초과시 50달러, 15-19마일 초과시 75달러, 20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가 부과된다.

페어팩스 모텔에서 악어 출몰 소동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헌팅턴 지역의 한 모텔에서 악어가 출몰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악어 소유주가 뉴욕에서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 동물원으로 운반 도중 이 모텔에

숙박했다가 악어가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범상 악어를 이색동물(exotic animal)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트럼프 시위대에 SUV 몰고 돌진

버지니아 컬페퍼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주말 제임스 메디슨 하이웨이 근처의 반 트럼프 시위대를 향해 SUV를 몰고 돌진했던 용의자 조셉 체크리크 주니어(21세)를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당국은 용의자가 고의적으로 차량을 몰고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다며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할 계획을 전했다. 당시 컬페퍼 카운티에서는 3곳에서 모두 1천여명의 시위대가 참가했었다.

18세 여성 과실치사 기소, 제한속도 2배 1명 사망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이 와니아 무사라트 사이크(18세)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용의자는 5월27일 윌브릿지의 미니발 로드와 서빗 로드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상대 차량 운전자 세마 리즈비(45세)가 사망

했다.

용의자는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 이상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유발했다.

버지니아는 과실치사를 5급 중범죄로 기소하고 1-10년형과 최대 25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가족 기업 이동통신업 진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의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자체 브랜드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황금색의 ‘트럼프 폰’도 나온다. 이 기업은 5G 요금제인 ‘47 플랜’ 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모바일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업체로, 3대 주요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한

다. 47 플랜은 월 47.45달러에 무제한 데이터 사용,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47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인 자신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T1 폰’도 출시한다.

가격은 499달러로 6.8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에 5000만 화소 카메라 등이 탑재된다.

김욱재 기자

식당·농장·호텔 이민 단속 중단

농업·서비스업 인력난 우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과 호텔, 식당에서의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2일 ICE 지역 담당자들은 고위 관계자로부터 “오늘부터 농장과 양식업·육류 가공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조사 및 활동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농촌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

화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 장관에게서 ICE 단속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전달받은 후 단속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속 중단 지침이 일부 산업에만 국한된 만큼, LA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의류업 등의 단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윤지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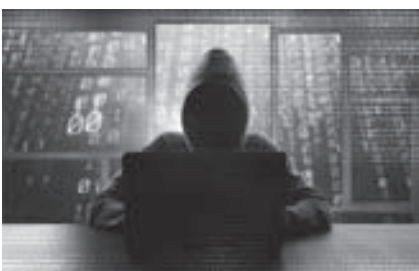
중국 기사 쓴 WP 기자 e메일 해킹 당해

"외국정부 소행일수도"

워싱턴포스트(WP)에서 중국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의 e메일이 해킹 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전했다.

WP는 해커들이 기자들의 마이크로소프트(MS) 계정을 통해 업무 e메일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일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주로 국가안보·경제정책팀 소속 기자와 중국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WP 측은 이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중국을 다루는 기자들이 해킹 피해를 본 만큼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기자들은 민감한 정보를 가진



WP가 소속 기자들의 e메일이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셔터스톡]

취재원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해킹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WSJ은 “고위 보안 당국자, 정치인과 더불어 언론인은 외국 정부를 대신해 정보를 수집하는 해커들의 가장 수익성 높은 표적”이라고 짚었다.

이날 매트 머레이 WP 편집국장은 직원들에게 “e메일 시스템에 표적화된 무단 침입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직

원의 자격 증명을 강제로 재설정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머레이 국장은 2022년 WSJ 편집국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e메일 해킹 사태를 겪었다. 당시 해커들은 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계열 기자들의 e메일과 기사 초안 등을 유출했는데, 주로 대만과 위구르족 문제 등 중국 관련 현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뉴스코퍼레이션 측은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WP는 “이번 해킹이 e메일만 침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자들은 취재원과 소통할 때 e메일보다 슬랙시그널 등 암호화된 메신저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머레이 국장은 “이번 해킹이 다른 시스템이나 고객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

워싱턴 날씨 (°F)

☀️

6월 17일(화) 81-71

18일(수) 89-72

☀️

19일(목) 91-67

☀️

20일(금) 88-69

☁️

21일(토) 92-72

☀️

22일(일) 95-76

☀️

23일(월) 98-77

☀️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플서비스

3.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여성 평균 출산연령 점점 늦어져

한인들 고령출산 많아
평균 34세로 집계돼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 여성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로 나타났다. 점점 늦어지고 있다.

14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은 산모의 평균 연령은 2016년에서 2023년 사이에 0.9세 증가하여 26.6세에서 27.5세로 증가했다.

아시아계 여성은 첫 출산 평균연령은

2016년 30.1세에서 2023년 31.5세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녀를 낳은 평균연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CDC는 이 분석은 출산 순서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인종과 민족 집단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노년 모성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자녀를 낳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수년간의 추세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육아 비용이 상상

외로 많이 든다는데 있다. 육아 비용은 매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2022년 전국 육아 비용 중간값은 연 6552달러에서 1만5600달러였다.

이 금액은 가계 소득의 8.9%에서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미주 한인 산모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20년 33.97세에서 2021년 34.15세, 그리고 이후 매년 약간씩 늦어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결혼관과 경제적인 문제, 의학 발달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성환 기자

싱글하우스 숨은비용 연간 2만달러

VA 2만828달러
MD 2만2992달러

워싱턴 지역에서 싱글하우스를 소유하는데 드는 ‘숨겨진 비용’이 연간 2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웹사이트 뱅크레이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싱글하우스 소유주는 모기지 이자와 원금 상환 외에도 집을 소유하기 위해 세금과 보험료 등 기타 비용으로 연간 2만82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메릴랜드는 2만2992달러, 전국평균은 2만1400달러였다.

이 조사는 49개주에서 단독주택을 소유했을 때 올해 기준 발생하는 재산세, 보험료, 에너지요금, 인터넷·케이블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합산해 분석했다.

전국 기준으로 연간 평균 주택유지보수비용은 8808달러, 재산세는 4316달러였다.

주택 소유비용이 큰 이유는 높은 주택가치로 인해 세금과 보험료가 오르는데다, 지난 5년간 누적 인플레이션도 약 25%에 달하면서 건축자재와 인건비, 서비스비용 등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물건이라도 5년 전 100달러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25달러가 된 셈이다.

전국에서 주택소유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인 하와이에선 연 3만4573달러가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캘리포니아(3만2262달러), 3위는 뉴저지(2만9751달러), 4위는 매사추세츠(2만9277달러), 5위는 워싱턴(2만7444달러)이다.

이같이 숨겨진 비용은 특히 첫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용부담은 주택구매자들의 후회로 이어지고 있다.

뱅크레이프가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주택구매를 후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2%가 예상보다 높은 유지보수 및 기타 숨겨진 비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김옥채 기자

페어팩스카운티가 사우디 사립학교 매입

공립고교 신설 계획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헌법에 위촉한 킹 압둘 아카데미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주 전원회의를 통해 이 학교를 1억5천만달러에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결의안은 9대0으로 통과됐는데, 문

일통 교육위원(광역)을 비롯한 3명은 기권했다. 문 교육위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킹 압둘 아카데미는 헌터의 에듀케이션 드라이브 선상의 약 30에이커 부지에 위치해 있다.

킹 압둘 아카데미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모두 1030명이 등록했던

곳으로, 사우디 왕정의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폐교를 결정했다. 킹 압둘 아카데미는 이슬람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오다가 지난 4월 폐교를 선언했다. 학교는 8월14일 공식 폐교한다.

카운티 교육청은 이 곳에 새로운 공립 고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워싱턴지역 오피오이드 배상합의금 사용처 논의

워싱턴지역 정부가 오피오이드 배상합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방당국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와 소유주 새클러 가문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정부 및 피해자 등에 총 74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퍼듀 파마는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반인들이 자사의 오피오이드 처방약 ‘옥시코틴’을 쉽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쳐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

목받았다.

메릴랜드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만 명당 약물 과다복용 사망률이 11.7%에서 42.8%로 증가했다.

카이저 가족 재단에 따르면 2021년 메릴랜드의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자는 2460명에 이른다.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 검찰총장은 “중독된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릴랜드가 받을 구체적인 합의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소 9천만달러가 예상된다.

버지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2024년 버지니아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1396명으로, 2023년 대비 43% 감소했다. 2021년에는 2622명에 달했다.

제이슨 미아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15년간 최대 1억380만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버지니아는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 등에 대부분의 합의금을 지출할 계획이다.

워싱턴 DC는 2022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률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DC의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률은 10만 명당 8.0명에서 48.9명으로 증가했다

김옥채 기자

틱벌레 특이 감염병 급증

버지니아 보건부가 틱벌레에 의한 희귀 감염병 ‘바베시오시스(Babesiosis)’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틱벌레에 물리면 세균에 라임병 유발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바베시오시스는 드물었다.

버지니아 보건부와 주립대학인 올드도미니언 대학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버지니아 등 중부 대서양 지역에서 이 질환이 크게 늘고 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2016년부터 바베시오시스 사례가 한두 건 보고됐는데, 2022년 4건, 2023년 7건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임병이 세균 감염 질병인데 반해 바베시오시스는 바베시아 마이크로티라는 기생충에 의해 발병한다.

바베시오시스 감염자는 대부분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이거나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증세가 심할 경우 여러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기도 한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최근 바베시오시스를 신종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이 질병을 유발하는 틱벌레는 주로 흰꼬리 사슴과 쥐 등 설치류에 기생한다.

김옥채 기자



OMNI
ALL ABOUT YOU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옴니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노



DUO NY 212-915-7115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주방위군 투입’ 합법 여부 제9 연방항소법원이 판단

판사 3명 17일 심리 개시
민주 임명 2명·공화 1명
최종 선고문 11명 참여

트럼프 행정부의 거주 방위군 동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내일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12일 거주 연방북부지법은 연방정부가 거주 방위군 2000여 명을 연방시설 보호를 위해 LA에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었다고 판결했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임명)는 “LA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반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결정과 조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법에서 내린 판단의 효력을 향후 심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키고, 17일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가주, 하와이, 아이다호, 괌 등 9개 주 또는 연방 관할 소재 지법의 항소 법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7일 열리는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52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 항소법원

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30명,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2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을 3명의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재판으로 법원장과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최종 선고 결정문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비율도 다수 혹은 소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며, 연방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임용된다.

최인성 기자

배스 LA시장, 한인타운 경계 강화

“한인사회 우려 알고 있어”

지난 11일 밤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대가 LA한인타운까지 진입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분지 6월 13일자 A-1면) 캐린 배스 LA시장이 한인타운의 안전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한인 사회와 함께 하고, 한인 사회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LA경찰국(LAPD)은 도시 전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일 시위대가 몰린 한인타운의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4:29 폭동,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당시 한인들이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A시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제기되는 우려들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인타운 내 비즈니스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장실은 성명과 함께 이민자 권리 정보, 고용주와 가족별 속지사항, 통행금지령 가이드 등을 한글 웹사이트도 소개했다.

김경준 기자

유타주 축제서 10대 소년이 총격

8개월 영아 포함 3명 사망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외 축제에서 10대 소년이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16일 솔트레이크시티 남서쪽 외곽 지역인 웨스트밸리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웨스트페스트 카니발’ 현장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 한쪽 무리에 있던 16세 소년이 총을 꺼내 발사했다.

현장 안전을 관리 중이던 경찰이 이 소년을 향해 총을 쏘지만 맞히지 못했고, 그 직후 이 소년이 쏜 5발의 총탄에 맞아 18세 남성과 그 주변에 있던 41세 여성, 8개월 영아가 숨졌다.

또 현장에 있던 17세 소녀와 15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총기 상점

소년이 팔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숨을 잃은 41세 여성과 8개월 영아는 말싸움 중이던 두 무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희생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격범인 16세 소년을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웨스트밸리시티 대변인은 전날 밤 기

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갇단과 관련돼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카니발 축제에는 약 1만명이 참가했으며, 이 축제는 도시의 설립과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솔트레이크시티 일대에서는 지난 주말 연일 총격이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솔트레이크시티 도심 시위 현장에서는 AR-15 계열 소총을 소지한 남성이 나타나 소동을 일으키던 와중에 안전요원이 남성을 제지하기 위해 발사된 총에 무고한 시위 참가자 1명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본보, LAPD에 기자 고무탄 피격 항의

지난 6월 11일 오후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불체 단속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본지 김상진 기자가 LA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에 피격돼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LA경찰국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과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SB 98)은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고의로 폭행하거나 방해, 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자가 단순히 정보를 수집·수신·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산 명령 불응이나 법 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13일 집 맥도넬 LA



경찰국 서장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사진)을 발송했다.



‘이민국 단속대처 요령’ 한글 안내문 타운에 등장 불법체류자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LA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의 건물 벽과 가로등 기둥 곳곳에는 이민국 단속에 대비한 한글 ‘대처 요령’ 안내문이 부착되기 시작했다. 안내문은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웨스트 애비뉴 사이의 월서 블라바드에 집중적으로 부착돼 있다. 안내문은 ▶ICE 요원 신원 및 목적 확인 ▶상황 기록 ▶정보 공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ICE 요원이 맞는지 주변에 확인하고, 만난 시간과 날짜, 장소를 정확히 기록한 뒤, 이 정보를 지역 신속 대응 네트워크 핫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 한인 전과자 추방 위기

자진 출국 준비 중에 연행

LA에서 한인 이민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미주한인봉사회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민자 단속 핫라인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한인 저스틴 정(사진)씨가 ICE 요원에 의해 연행됐으며, 현재 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

정 씨는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으나, 10대 시절 갇단과 연관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간 복역했다.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정 씨는 갇단을



떠나 사회에 복귀해, 청소년 대상 멘토링 활동과 수감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했으며, 최근 ICE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 준비를 진행 중이었다.

강한길 윤지혜 기자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S

Always With You!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십니다.

- ▶ 개인간병 서비스
- ▶ 의료가구, 건강보조(Nutrition) 주문 지원
- ▶ 병원예약, 약국업무 도움
- ▶ Medicaid 등 갱신업무 도움
- ▶ 룸케어, 푸드스텝 등 Consulting

언제든 연락주세요.
703-507-2492 Mr.배/571-334-3963 Mr.윤



진심을 다하여 필요한분을 돌보아 주실
간병사님을 모십니다.

- ▶ PCA Academy
- ▶ 25년 3월 ~ 6월까지 Certificate 발급 (무료)
- ▶ 매월 2회 (2/4주 월요일 시작)
간병사 교육 (5일 40시간)
- ▶ 지속적인 보수 교육 실시

언제든 연락주세요.
703-507-2492 Mr.배/571-334-3963 Mr.윤



703.507.2492 / 571.334.3963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Hyunshomecare@gmail.com
admin@hyunshcs.com

www.hyunshcs.com



‘민주주의 붕괴’ 외친 LA ... 끝내 폭력 시위로

LA 집회 현장 르포

국민 보호 의무 저버린 군대
춤·음악 등 축제 분위기로 시작
오후 해산 명령, 양측 대치 격화

“왕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인 지난 14일, LA 다운타운 시청 앞은 이른 아침부터 함성으로 가득찼다. 수만 명이 모인 현장은 오전 내내 축제처럼 이어졌지만, 오후들어 긴장감이 감돌았고 결국 최루탄과 고무탄이 쏟아지는 격렬한 충돌로 치달았다.

아침부터 시민들은 시청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성조기와 멕시코, 온두라스, 팔레스타인 국기까지 다양한 깃발이 펄럭였고, 인종과 세대를 막론한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와 이민정책을 규탄했다.

“노 킹스(No Kings)”, “ICE(이민세관단속국)는 LA에서 나가라(Ice Out of LA)”라는 구호가 메아리쳤다. 전국 50개 주 20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노 킹스 데이’ 시위의 LA 현장이었다.

오전 9시 30분, 시민들은 시청 앞 스



지난 14일 오전 LA 시청 인근 그랜드 파크에서 ‘노 킹스’ 시위 행진 전에 멕시코 전통무용단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자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사했다. 한 남성이 최루탄을 집어 경찰을 향해 던졌다. 김상진 기자



프링 스트리트에 집결했다. 헬기들이 상공을 순회하는 가운데 광장은 순식간에 피켓과 깃발로 가득찼다. 10시 40분부터 시작된 행진은 브로드웨이를 따라 퍼싱스퀘어까지 이어졌다. 드림과 나팔 소리가 시위를 이끌었고, 피켓에는 “왕좌도 없다, 왕관도 없다,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퍼싱스퀘어에 도착한 시위대는 초대형 천 위에 각자의 메시지를 남겼다. “미국은 정의를 지지한다”와 “그 어떤 인간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적으며 다양한 목소리의 연대를 보여줬다. LA 도심의 도로마다 시위 행렬이 가득했고, 규모는 십만 명을 훌쩍 넘어 보였다.

시위 인파 속에는 한인도 있었다. 선우윤경씨는 한글로 ‘트럼프의 거짓이 가족을 갈라났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 모두 이민자”라며 무차별 단속으로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광장 한켠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남미계 시민들이 북과 피리를 연주하며 의식 춤을 추는 장면도 펼쳐졌다. 정오까지 시위는 마치 축제 거리를 방불케 했다. 아이들이 깃발을 흔들고, 음악과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러나 오후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오후 2시경부터 ICE 청사 주변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시위대가 이민국 건물 앞으로 몰렸다. 노란색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며 질서가 무너졌다. 시위대는 군인들 앞까지 다가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트럼프나 지켜라”라며 고함을 질렀다.

계단 위에는 60여 명의 해병대 병력이 개인화기를 들고 건물 앞을 지켰다. 가주 방위군은 연방법원 앞을 지켰고 프리웨이 진입로는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차단했다. 이민국 건물 앞에 선 존 라우리는 “ICE 요원들이 무작위로 입산부, 시니어, 학생을 잡아간다”며 “우리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인 조엘 패터슨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주방위군과 해병

대가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군대인지, 트럼프를 위한 군대인지 모르겠다.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 4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도로를 막고 무장 경찰이 진입했다. “물러서(move back)!”라는 경찰관의 외침이 반복됐지만 시위대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최루탄이 터지면서 고무탄과 곤봉, 비명이 뒤섞인 혼란이 시작됐다. 경찰은 밀어붙이며 시위대를 해산했고, 기마대가 돌진하자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고무탄에 맞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급히 응급처치에 나서 지혈하고 그늘로 옮겼다.

브로드웨이 일대는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민들이 서로 눈을 씻어주는 장면이 이어졌다. 인근에는 분무기와 물티슈를 든 시민 응급대가 형성됐고, 화성기로 “최루탄 맞으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7시 무렵 이민국 앞은 일단 해산됐지만 일부 시위대는 남쪽으로 이동해 행진을 계속했다. 경찰은 계속 뒤따르며 도심 곳곳이 긴장에 휩싸였다. 밤이 되면서 다운타운을 포함한 차이나타운 일대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

김경준·강한길 기자

승무원인 척...6년 동안 120회 넘게 공짜 비행기 탄 남성 결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 6년 동안 120회가 넘는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30대 미국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단은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 4건, 허위 신분 이용 보안 구역 불법 침입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은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알렉산더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 승무원 전용 인터넷 탑승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120회 이



아메리칸항공 홈페이지 캡처

상 부정 예약 및 무전 항공 여행을 한 혐의다.

알렉산더는 승무원으로 일한 적

이 있었다. 그는 항공사가 경쟁사의 조종사나 승무원이 ‘비수익(non-revenue)’ 승객으로 무료 탑승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승무원 ID 배지 번호와 입사일 등을 위조해 항공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그는 30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어 7개 항공사 소속인 것처럼 속였다.

가짜 신분으로 스피릿항공 등 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애틀랜타,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을 오가는 항공편을 부정 예약해 탑승했다.

알렉산더의 범행은 2023년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의심스러운 탑승 패턴을 포착하면서 달미가 잡혔다.

탑승권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실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했는데, 이 정보들이 항공사 기록 장부에 누적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TSA는 알렉산더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는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스피릿항공 승무원 행세를 하며 호주로 떠나려다 체포됐다. 알렉산더는 최근까지 아메리칸항공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무급 정직 상태다.

그는 2022년엔 알래스카항공 조종사 아카데미에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델타항공과 알래스카항공 승무원 직에도 지원한 이력도 있었다.

알렉산더는 전신 사기 혐의 4건에 대해 각각 최대 20년, 공방 침입 혐의 1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혐의당 최대 25만달러씩 총 1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형량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예정이다.

정사내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라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LOGOS LAW GROUP
GUIDED BY FAITH, ROOTED IN INTEGRITY, SERVING WITH PROFESSIONALISM.

로고스 법률 그룹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Jiyou Kim, Diane Lee, Jimmy Park, Sam Kim, Joy Lee
세열먼트팀: Sammie You, Sook Kim

비즈니스 / 부동산

- 비즈니스 설립 / 매매
- 비즈니스 매지먼트 / 라이선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쉽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 리커 라이선스 위반 재판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NIW 웨이버 / Hardship Waiver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법정 상속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열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703-621-7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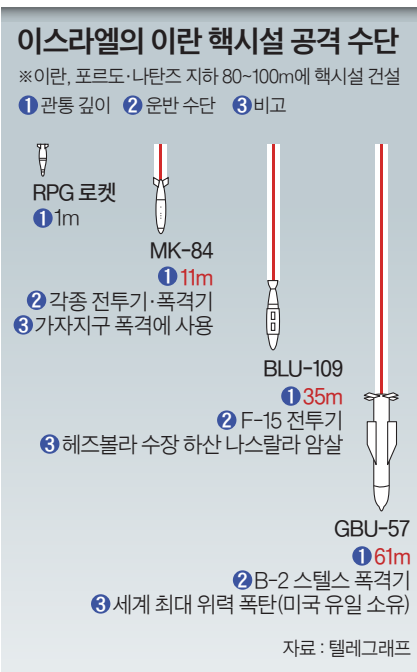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48 Ellicott Center Dr. #103, Ellicott City, MD 21043

‘이란 정권붕괴’ 언급한 이스라엘, 정부청사·인프라 때렸다

네타냐후 “핵 홀로코스트 허용 안돼”
‘이란 핵 심장’ 포르도 파괴도 시사
이란은 텔아비브·하이파에 미사일
양측 당분간 보복전 이어나갈 듯

나흘째로 접어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확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은 16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의 지휘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군사시설을 겨냥한 선제 공격의 연장선상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14일 밤부터 정유소에 이어 정부 청사, 도심 시설 등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했다. 위성정보 스트는 15일 “이스라엘은 이란 산업·치안 기구·인프라를 타격함으로써 이미 위기에 처한 이란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도 16일 이스라엘 중부의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날



하루에만 총 11명이 숨지자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테헤란 주민들이 곧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텔아비브에 위치한 미국대사관 분관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날 주거용 건물 여러 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 대사관 측은 “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군사시설이 타격을 받은 모습이 드러났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15일 공개한 테헤란 남서쪽 비드카네에 위치한 미사일 시설 일부가 파괴된 모습. [연합뉴스]

물에 경미한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측은 이날 이스라엘의 방공체계인 아이언돔을 교란하는 ‘신종 공격 기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이란이 텔아비

브와 하이파를 공습하는 데 극조음속 미사일을 썼다고 보도했다. 나흘간에 걸친 공습으로 양측의 인명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24명이 숨지고 1277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최소 24명이고, 부상자는 592명

으로 집계됐다. 양측은 당분간 대규모 보복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다”며 이란의 정권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란에서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며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이란의 ‘지하 핵 심장’으로 불리는 포르도 핵시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이란 중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곳엔 60% 농도의 우라늄 408kg이 보관돼 있다. 단 3주 만에 핵탄두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6일 의회 연설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핵에너지와 관련된 연구개발 권리는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호·위문희 기자**

“G7, 기적 없으면 공동성명 못 낼것”…G1 대 G6 반복되나

(미국)

트럼프, 캐나다 G7 정상회의의 참석
7년전 G7엔 다른국가와 관세 충돌
홀로 팔짱끼고 SNS선 트뤼도 비난
이번에도 한국 등에 압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휴양도시 카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8년 캐나다 퀘벡 G7 정상회의의 참석 이후 7년 만의 복귀이자,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외교 무대다.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강조한 G6(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정상들과 ‘관세 폭탄’을 놓고 대립했다. 당시의 대립은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홀로 책상에 앉아 있고, G6 정상들이 그를 둘러싸고 심각한 표정으로 설득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주최국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위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소셜미디어(SNS)에 “거짓 성명이고, 그는 부정직하고 나쁜 인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번에도 ‘미국 대 G6’의 극한 대결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폴리티코는 “G7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G6 대 트럼프의 대결”이라며 “외교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에도 공동성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로 출발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G7에서) 몇 가지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G6 국가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5개 주요국은 다음 달 8일로 일방 통보된 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쳐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핵심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25%) 등엔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됐고, 추가 관세 인상에 예고된 상태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인사들과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이대통령, 통역 담당 행정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혜경 여사, 타마라 모후니 주한 캐나다 대사, 우상호 정무수석. 김현동 기자

결과와 첫 대면에서부터 강하게 관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G6 중 일부는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총대를 땀다가 트럼프에게 소위 찍히는 상황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선 확대는 부담이다. 이날 오전 SNS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도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쓴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배경은 급변하는 국제유가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지난 13일 서부텍사스유(WTI)는 한때 14.07% 치솟았다. 2022년 3월 이후 최대 변동폭이다. 지난달 배럴당 60달러 초반이던 유가 선물가격은 70달러 중반을 넘어섰고, JP모건은 이날 “최악의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강태화 기자**

퍼스트 홈케어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윌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
료
과
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15·25·40·50만원 전국민 차등지급 추진

〈민생지원금〉

20조+α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소득상위 10%엔 기본 15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40만, 기초수급 50만원
나머지 4300만명엔 25만원 추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α’로 정해졌다.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성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는 최소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단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5만원을 받는 일반 국민 중 소득이 낮은 구간을 신설해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

의 중이다.

이는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보편 지급’이란 여당의 원칙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인 셈이다. 빠듯한 세수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구간을 나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다. 당초 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2020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현금)이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담긴 전망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통상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할인액을 국비와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왔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지역화폐 지원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정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정부는 1조522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번엔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 위축이 심한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1년보다 줄어 들 수 있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당 자체 추경안에 담겼던 신용카드 소비 캐시백이나 8대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은 빠질 전망이다.



다만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에는 위촉된 건설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포함된다. 농업용 수리시설 등 농업 기반 SOC 사업 등이다. 산업 정책 역시 1차 추경이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추경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예산은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도 대거 담긴다. 현재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취업준비생과,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고용 위기 대응 사업 예산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13개월 연속 하락 중인 청년 고용률 대상을 위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예산도 증액된다. 이외에도 각 부처가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보고받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따라 소득 상위 10%(약

512만 명) 15만원, 일반 국민(약 4300만 명)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약 38만 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267만 명) 50만원을 지급하면 총 재원은 약 13조50억원이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전히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라며 “다만 정부가 차등 지급으로 설계해 온다면 재정 여력을 판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차등 지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우리는 여전히 보편 지급을 주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추경엔 세입 경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와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에 대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미리 메워두는 걸 말한다.

세입 경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와 별도로 처리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고려할 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김연주·김나한 기자

땃 올린 국정기획위, 내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는다

사실상의 인수위 60일 활동 시작
“국정계획 빠르게 세워 정부 뒷받침”
이한주 위원장 포함 기획위원 55명
임은정·류삼영·김규현 등도 위촉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일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인수위원장 격인 이한주(사진)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출발해 마치 뚜껑도 없이 달리는 열차 같은



상황”이라며 “국정 계획을 빠르게 세워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분과는 ‘월화수목금급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회복과 성장 ▶선진국다운 가치관 ▶인권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이를

토대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골목골목 선대위’였던 것처럼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장에) 내려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18~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첫날 회의에선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 개편과 조세 개혁 등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과 재배치”를 강조했다. 조승래 대변인

도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도하게 된다. 이번 기획위는 2017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제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확대됐다. 당시 6개이던 분과는 ▶국정기획 ▶경제1 ▶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로 확대 편성됐고, 기획위원도 30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외부 전문가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속속 합류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류삼영 전 총경, 김규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경 개혁을 주장해온 임 부장검사와 류 전 총경은 수사·기소 분리 중심의 감·경 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해온 김 변호사는 군 내부 개혁을 위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조수빈 기자

“Father's Day Special! 세라젬 프로모션 기회 놓치지 마세요.” CERAGEM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우아하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설계된 “파우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기술력으로 최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관세협상,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 안되는게 중요”

첫 출국길 ‘즉석 기내간담회’
“국제사회에 정상화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외교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꼭 관철하고 싶은

기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변수가 워낙 많아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조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불과 12일 만에 해외 방문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당초에는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

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 당초 생각과 다르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G7 플러스’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5대 군사 강국,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잠시 후퇴가 있긴 했지만 신속하게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에 더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연히 정상외교도 지금보다 활발히 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정상외교를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기업의 해외 진출도 더 원활해질 수 있다”며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산업이나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트럼프…G7서 회담 가능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예정
1박3일 첫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4시30분 서울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뒤 이 대통령은 1박 3일의 ‘외교 강행군’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 무대 데뷔 전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전날 이번 G7 참석의 의미를 “(12·3 비상계엄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부수석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새 원내대표

등의 환송을 받으며 출국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과관색과 빨간색, 흰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낮 12시쯤(이하 현지시간) 캘거리에 도착한다. 도착 당일에는 G7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 받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앨버타주 주지사가 주재하는 환영 리셉션과 주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이튿날인 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캘거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한다. G7 회의 개최지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G7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각각 약식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7일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 일정을 소화하고,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도 참석한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공식 일정을 마친 뒤 다시 캘거리로 이동해 귀국 비행기에 오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8일(이하 한국시간) 늦은 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16일 오전 위성락 실장은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조찬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주한 일본대사관이 개최하는 리셉션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조찬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위 실장에게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 합의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성민 기자



대통령 부부 첫 순방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간)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확대 세션에도 참석한다. 김현동 기자

야당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혁신위 조속히 발족”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16일 선출됐다. 이날 오후 열린 당의원총회에서 송 원내대표는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획득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지었다. 김성원 의원은 30표, 이한승 의원은 16표를 얻었다.

송 원내대표는 선출 뒤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

이고,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과거 퇴행적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혁신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하는 데 총의를 모으고, 특정 계파나 편향적으로 알려진 이들은 가급적

이번 인선에서는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약속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사퇴한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옛 친윤계 등 구

(舊)주류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송언석 의원과 친한동윤계가 힘을 실은 김성원 의원의 세 대결 양상은 선포됐다.

하지만 20여 명에 불과한 친한계보다 옛 친윤계의 몸집이 더 큰 데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89명) 중 65%(58명)에 달하는 영남 의원의 표심이 쏠리면서 송언석 의원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손국희·장서윤 기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의원(왼쪽)이 16일 국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aetna | Anthem HealthKeepers Plus | MOLINA HEALTHCARE | Sentara Health | United HealthCare Community Plan

Cheltenham Homecare | **첼튼햄 홈케어** |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 문의 전화: 800-764-1005 |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매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SOVA, LLC |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 jennetpro4u@gmail.com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 \$825,000

COMING SOON 리스팅 | RENT

센터빌 타운홈 \$2,950 | 버크 싱글홈 \$1.25M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정치중립’ 검찰총장이 웬 비화폰?… 윤 정부 때 처음 지급

〈경호처 지급〉

통화6일 뒤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심총장 측 “사건관련 통화 아니다”
여권 “김건희 특검 대상 포함시켜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앞두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은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제공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범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께 김주현 전 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2분 32초간 통화했으며,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 2분에는 김 전 수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11분 36초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10월 17일)을 내리기 각각 6, 7일 전이다. 직전인 10월 7일 정

치브로키 명태균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하야·탄핵”을 언급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확산되던 시기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통화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부재중 통화에 응답한 것이 있었을 수 있다”며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9일 취임했다. 김 여사 사건 불기소 등 수사 혐의의혹에 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재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해 10월 17일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그날 중앙지검 브리핑 직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고도 설명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총장의 김 여사 사건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이후 후임 총장들의 수사지휘권도 복원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명태균 사건 역시 “이와 관련 통화했
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창
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지난해 10월

17일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지난해 11월 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검찰청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에 대통령경호처가 보안 통신

인 비화폰을 지급하고,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혐의'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은 김 전 수석과의 두 번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기는 현재 경호처에 반납된 상태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해 사용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심 총장이 사용한 비화폰은 전임 총장(이원석)에게 인계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전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재임 중) 비화폰을 보거나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비화폰 통화' 의혹을 감
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 곧바로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서 "심 총장은 비화폰을 이용해 대통령
실과 작당모의를 했는가"라며 "특검은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했다. 그러
면서 "검찰 정책이나 행정이 도·감청을
경계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다. 왜 굳
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화폰을 썼느냐"
고 지적했다. 석경민 기자

샤넬 백 2개 → 백 3개·신발 1개로... 김건희 '신데렐라 수사' 되나

김건희는 서울아산병원 입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선 물용'으로 건넨 샤넬 가방 2개가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을 검찰이 파악했다.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신 발 치수와 같다면 김 여사가 선물 교환 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정황을

조작했다. 앞서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전씨에게 김여사 선물용으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 취임식 뒤인 그해 7월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유 전 행정관은 첫 번째 가방을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고, 두 번째 가방은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

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김 여사와 무관한 전씨의 심부름”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전씨는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신발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전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신발은 치수가 있는 만큼 줄 사람이 특정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

로 알려졌다. 신발 교환을 요청한 이가 김 여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갚은 선물일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아산 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앓았던 내·외과 지병 때문에 전해졌다.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앞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몇 차례 입원을 권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규·손성배 기자

서초 집값 0.95% 뚫때 도봉 0.02% 올랐다

〈전월대비〉

5월 아파트값, 4월 대비 0.54% 상승
금리인하기대, 공급부족 우려 원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가계 대출까지 최근 급증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조기에 나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 대비 0.54% 올랐다. 지난 3월(0.8%)에는 못 미쳤지만, 전달(0.3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6월 들어선 상승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은 0.45%다.

서울부동산정보공장에 따르면 3월 9218건이던 거래량은 4월 5412건으로 주춢했다가, 5월 들어 7011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보름가량 남은 실거래 신고 기한에, 다음 달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막차 수요'를 고려하면 1만 건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오르던 곳이 더 오르며 서울 내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아파트를 포함한 5월 주택매매지수를 보면, 서초구는 전 달 대비 0.9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송파구(0.92%)·강남구(0.84%)·양천구(0.66%) 순이었다. 반면에 도봉구(0.02%)·강북구

(0.03%)·노원구(0.05%) 등은 상승 폭이 작았다.

물론 서울 집값이 다 오른 것은 아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6월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8657건) 중 상승 거래는 49.1%(4257건)였다. 포함(1428건)은 16.7%, 하락(2882건)은 33.2%다. 지난 1~4월(상승 48.4%, 하락 33.8%)보다 상승 거래 비중이 소폭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서 서울 외곽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 집값은 경제 편

더멘털을 이탈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정부가 나서 시장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주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닌 가급적 '비가격' 정책을 쓰도록 유도해 대출 수요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인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너무 길다. 기간을 단축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 모집인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서울 일부 지역 주담대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수요를 줄이겠다고 대출 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은 소비자 불만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 “이미 일부 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에 대해 자체적인 주담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핀셋 제한도 방안의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단기 급등에 세제로 대처하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윤·김남준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주택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SALE	\$1,999,900	맥클린 고등학교 옆 HOA 있음. 홈스테이 하기엔 좋은 집. 방 7, 화장실 5.5, 실용적인 주차. 맥클린 다운타운 도보 가능. 팀 앞 버스정류장 등 교통 편리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갈 예정
	1631 Cecile St, McLean, VA UNDER CONTRACT	\$1,430,000	맥클린 고등학교 걸어갈 수 있는 위치. 싱글홈, cul-de-sac, 오픈하우스 집을 보았거나 좋은 오박 계약 가능
	1930 Battery Park Dr, Vienna, VA SOLD	\$1,315,000	여러 오박 경쟁 끝에, 이거는 오박 자신 있음. 5/20 세들먼트 완료 NEW
	2325 9th St, S., Arlington, VA SOLD	\$925,000	5/23 세들먼트 완료 NEW
매매 및 렌트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OLD	\$501,000	복수 오박 비해서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오박 선택, 3주만에 세들먼트 완료 3/21 세들먼트 완료
사업체 매매	엘라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안에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살 때 다른 베이비시터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채 더 있음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수잔 김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이후 멘털 혼든 연속 질문도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경기도 성남에서 했다. 성남을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이라고 소개하며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대선 승리 후 열흘 남짓 동안 이 대통령은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4일 국회 취임사에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담겼다. “낯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고,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념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

이 대통령과 오래 관계를 맺어온 민주당 소속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를 맡아 일할 때도 이념과 관련해서 별로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공감을 표했다가 당내 강성파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이 대통령은 이념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이나 아니냐를 기준으로 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적인 관점은 취임 당일 새 정부 첫 인선 발표 과정에서도 관찰됐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국가 정책을 개인의 신념처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어렵고, 그게 현실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 의식, 두 가지를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일 관계도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협안을 뒤쫓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건 추진하고 피해가 되는 건 피하되 적정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의 행보 중 청소 노동자를 찾아간 장면이 인상 깊었다는 측근들이 꽤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국회 청소 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쫓그리고 앉아 미화원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조심을 보여주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청소 노동자들을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취임 직후 청소 노동자 방문, ‘초심’ 보였다는 평 김문수에 안부전화, 하지만 관심은 내년 지방선거 G7 전 의견 수렴 위해 취임 9일 만에 재계 간담회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북 안동에서 올라와 성남에서 어렵게 살던 시절 이 대통령 가족은 주로 청소 노동에 종사했다. “꼭우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 유세를 듣는 국민에게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봤다. 장대비쭈미야 아무렇지 않을 만큼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지 알 수 있었다”고 한 취임사의 취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내년 부산 박터지겠네요”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회 사랑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것도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영수회담 제의를 했던 터라 대야 관계에서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인지 기대를 낳게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쟁자였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안부 전화도 걸었다. 휴대전화로 “잘 계시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김 전 후보의 건강과 함께 배우자 설날 영여사의 안부도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협치 무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의중에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여당 지도부와와 만찬 자리 말미에 “내년 부산 박터지겠네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만찬 참석자는 “대선 때 부산이 치열하지 않았느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했던 부산 관련 공

약을 잘 지킬 테니 내년 지방선거도 열심히 준비하라는 취지로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PK(부산·울산·경남)에서 역대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인 40.14%를 기록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39.87%, 19대 대선에서 38.71%를 기록했었다. 부산상고를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도 29.85% 득표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취임 후 첫 대형 선거를 겨냥한 준비를 벌써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 맞고 능력 있으면 계파 안 따져

이 대통령의 용인술과 관련해서 계파를 따지지 않고 마음 맞고 일 잘하는 능력을 갖춘 이를 선호한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잘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 감각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386 정치인의 선두 주자로 꼽혔던 김총리 후보자는 과거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던 인물이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대선 정몽준 후보를 택하면서 정치권에

서 멀어졌는데, 이번에 재기한 셈이다. 외교 안보라인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발표됐고,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 많은데, 국정 운영에는 신인 발탁보다 업무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쓰는 게 낫다는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여론 정치인들의 중량감을 높여주려는 경향이 나타나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 배울 점”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한다. 3년 전 우리 정부가 홍준표 국무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 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영했다면”이라고 아쉬워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어떻게 그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라고 민주당 소속 인사가 전했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수해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우수관 관리를 잘 안 하는 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부서는 사고 나면 문책, 심지어 구속당할 수도 있어서 대개 미움받는 공무원을 보낸다는 말이 있다. (부처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관리를 겸하게 하자는 제안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했다. 취임 첫 인사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 멘토였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에 앉히고, 경제·금융 분

야의 정통 관료 출신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그래서 뭐를 하자는 거죠?” 연속 질문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과장급 직원이 “처음 말씀 드려다 보니 긴장이 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라고 했다. 직원은 시장 감시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데, 불공정 거래 세력들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려면 유관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담은 정보 공유를 위해 조직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언을 곰곰이 들은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인력 확대는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권한 확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불공정 세력이 때때로 하기 전 사전 포착해서 기관끼리 공조해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후 또다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해당 과장에게 되물고는 뒤 “문제 제기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 당국이 검토해볼 문제 같다”고 마무리했다.

대통령과 즉석에서 일문일답을 하게 된 직원에 대해 사회자가 “연이어 (대통령의) 질문을 소화하느라 과정이 멘탈이 나간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이 세밀한 정책 내용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실무자들과 세부 내용까지 토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확인된 자리였다.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 점심으로 김밥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서너 시간씩 하면서 현안 대응책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를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한 뒤 대통령실 회의장에서 만나 “잘 부탁드린다. 상당히 노가다 자리”라고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3특검 후보 중 세 명을 이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 시간은 한밤중인 지난 12일 밤 11시 9분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재계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한 측근 인사는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마주 앉은 것인데, G7 정상회의의 출국 전 의견을 듣고 가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논설위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자중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dc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38 816 816

신성재 변호사

경기 참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골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38 816 816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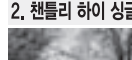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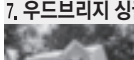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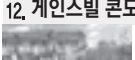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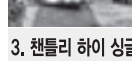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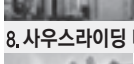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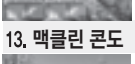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웃 하이, 프로스트비치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하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애난데일 싱글 \$74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학교 포함! 방 3, 하 3, 커먼지, 세차장, 드라이브인 4룸짜리, 욕실,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동시내 보타 신원불이상 판매, 리모벨링/투차 가차높음, 395/236/495/95/66	11. 센터빌 벅타운 \$639,000  방 3, 하2.5, 차고1, Hmar2인근, 29/Braddock/28,66 Coming Soon
2. 챗틀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하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7.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3, 하2.5, 차고1, 좋은학교 /통내, 전부 업그레이드, RT11/95/234 Coming Soon	12.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하2.5, 차고1, 1,778sqft, RT29, Gate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Under Contract
3. 챗틀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6, 하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8.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3, 하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13.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  1. 방1, 하1, 762sqft 2. 방2, 하2, 1,050sqft McLean Hgh, RT 495,66/267/1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벨링, 방 6, 하4.5, 차고2, 솔라 패널, 6,228sqft	9.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하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알라스 공항 Coming Soon	14. 챗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 3, 하3.5, 차고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Rented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하4, (메인/ 풀베스), 차고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커스 매나사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15.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회,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벨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옆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06/21~07/04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390+항공
06/24~07/04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6/25~06/30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6/28~07/05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06/30~07/03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8~0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8/02~08/15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390+항공
08/05~08/15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8/08~08/13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4~08/20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08/21~08/31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10박 11일	\$2990+항공/오션뷰
08/29~0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08~0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2190(부터~/인사이드) \$2590(부터~/가려진 발코니)
09/09~09/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6~09/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10/21~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8박 9일	\$22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03~11/14	일본 크루즈	11박 12일	\$2490+항공 부터~/인사이드
11/11~11/24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3박 14일	\$3980+항공
11/14~11/24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6~11/30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490+항공
1/27~2/2/26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0박 11일	\$7800+항공
2/19~3/1/26	아프리카 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드레슈르 제과점 옆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타프트레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JAL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면 할인 혜택됩니다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북유럽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까지 보는 최고의 일정

1차 6/24~7/4
2차 8/5~8/15

\$4,390+항공
10박 11일

캘거리 IN/OUT 록키 완전 정복!
더이상 차만타는 여행은 NO!!

캐나다 록키

1차 6/25~6/30 (로키 국립공원 특선)
2차 8/08~8/13 (여름방학 특선)

\$2,290 (항공포함)
5박 6일

마감 임박

정통 서유럽

3차 7/08~7/18 (여름방학 특선)
4차 9/09~9/19 5차 10/9~10/19

\$3,590+항공
10박 11일

알래스카 일주

전 세계에서 하루가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신비한 마력을 가진 마지막 땅!

8/14~8/20

\$2,990 (항공포함)
6박 7일

마감 임박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9/30~10/13

\$4,590+항공
13박 14일

크로아티아 발칸

아픈 현대사를 안고도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발칸과
중세도시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

10/5~10/13

\$3,590+항공
8박 9일

스페인 & 포르투갈

10/7~10/17

\$3,390+항공
10박 11일

이집트 두바이

11/21~12/2

11박 12일
\$3,899+항공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27~2/6/26

10박 11일
\$7,800+항공

아프리카 두바이

2/19~3/6/26

15박 16일
\$12,500+항공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문화·종교·역사**의 요충지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이stanbul-카파도키아-콘아-파묵칼레
트로이-까발라-데살로니카-아테네

9/24~10/4
10박 11일
\$2,990 (+항공)

빌립보, 에페소 등 바울 사도 전도 여행의 행선지.
민주주의, 서양철학, 문학 등 서양문명의 원조.
가는 곳마다 지구가 맞닿아 싶은 신비로운 땅의 연속!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원더풀 전문 에이전트
미세스신, 케이티킴 앨런리, 엘리서 홍수향, 해나문 레나고 윤태웅 그레이스조 세라강

인생 바킷리스트 크루즈

NCL NORWEGIAN CRUISE LINE
*아이슬란드 & 그린란드 **마감**
8/21~8/31 | 10박 11일
\$2990 (+항공/오션뷰)
*일본 크루즈
11/3~11/14 | 11박 12일
\$2490 (+항공 부터~/인사이드)
*도쿄, 나고야, 오사카, 오키나와, 가고시마, 나가사키

ROYAL CARIBBEAN
*알래스카 **마감** of the Seas 17만톤급
9/8~9/15 | 7박 8일
\$2190 (부터~/인사이드), \$2590 (부터~/가려진 발코니)

*Allure of the seas 23만톤급 (바르셀로나 시내관광 포함)
10/17~10/26 | 9박 10일
\$2990 (+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 (+항공 부터~/오션뷰)

*Odyssey of the Seas 17만톤급 (왕복라이드 포함)
2/7/26~2/15/26 | 8박 9일
\$1599 (인사이드), \$1899 (가려진 발코니)

VIKING RIVER CRUISES
바이킹 크루즈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고품격 고국일주** **탑여행사 한국지사** 직접운영합니다

10박 11일 \$2990+항공

3차 09/16~09/26	오사카 13박 4일 9/27~9/30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동경 13박 4일 10/25~10/28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일본크루즈 11박 12일 11/3~11/14 인사이드 \$2990+항공 부터~/오션뷰 요금문의 발코니	동경&오사카 5박 6일 11/8~11/13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4차 10/14~10/24				
5차 10/21~10/31	동경 13박 4일 동경&오사카 5박 6일	오사카 13박 4일 동경&오사카 5박 6일	동경 13박 4일 오사카 13박 4일 동경&오사카 15박 6일	동경 13박 4일 오사카 13박 4일
6차 10/28~11/07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온대/서늘/전주 안목이올 라온호텔/여수 소노캣/가제 소노캣/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온호텔/부산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

여행지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경주
강릉/속초/계주

천심/몽트랑블랑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7/3~7/6
\$899

레치워스/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7/4~7/6
\$699

뉴욕 불꽃놀이
독립 기념일 특선
1박 2일
7/4~7/5
\$425

성구 노아
+아메시마켓 당일
\$199
7/22, 9/9, 9/30, 10/16
10/29, 11/13, 12/4

미동부
나이아가라/도론토/몬트리올
퀘벡/플라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천심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
워싱턴대사관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티켓만 판매 \$25

미서부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월요일 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월요일 출발

요세미티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매주 월요일 출발

옐로스톤
6박 7일 \$950+항공
매주 월요일 출발

마운트 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매주 수요일 출발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매주 월요일 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SI가 학생 수준별 콘텐츠 추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고성환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상당수 국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는 다르다. 한때 ‘중장년층의 재교육 기관’이란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엔 2030세대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해(2025학년도) 재학생 약 9만 명 중 2030의 비율이 43%에 이른다. 특히 컴퓨터과학과의 경우 재학생 80% 이상이 20·30대 학생이다.

지난 10일 서울 동승동 대학본부에 만난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이제는 학교의 이름값보다 무엇을 배우느냐가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가 됐다”면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송대의 강점이 2030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 총장과와의 일문일답.

– 방송대로 향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요즘 20대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시간을 자산처럼 여기는 세대다.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합리적인 학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방송대를 선택한다.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다. 이제는 기업도 학교 이름보다 실무 역량을 더 중요하게 보고 사원을 채용하는 시대다. 이런 흐름 때문에 방송대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그동안 방송대가 안고 있던 대량 교육의 한계를 AI가 보완해줄 수 있기 때

문이다. 교육 질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도입하는가.

“방송대는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한 강의를 (일반 대학처럼) 20~3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수강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 수업은 콘텐츠를 제공한 뒤 (온라인) 게시판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수준이었다.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80점을 받으면 B학점을 주고 말았다.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정밀한 진단은 불가능했던 얘기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 달라진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분과 적분은 잘하지만 인수분해에 약하다’는 식의 분석이 가능하고, 그에 맞는 추가 학습 콘텐츠나 과목을 추천할 수 있다. 현재 방송대는 이러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인 ‘AIDU(AI Digital University)’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AI 교육도 방송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민 누구나 AI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는 시대다. 정부가 지역거점 국립대 9곳에 AI 단과대학 설립을 검토 중인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다. 하지만 이런 전문 인재 양성과는 별도로, 전 국민이 AI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대는 50시간, 100시간 등 단기 수료 중심의 실용적인 A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기초 과정을 통해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 복지에 AI 기반 맞춤형 학습 환경까지 제공하는 게 방송대의 목표”라고 말했다. [사진 방송대]

중장년 재교육 기관 이미지 탈피 자기개발 중요시하는 2030 세대 컴퓨터과학 등 첨단 학과에 몰려 문학·철학 등 인문학 분야도 강화

흥미를 느낀 학습자들은 학위나 대학원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다. 방송대는 이미 전국 단위의 방송 인프라와 모바일 교육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런 실용 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정부가 이처럼 잘 갖춰진 인프라를 가진 방송대를 더 적극적으로 교육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1972년 개교한 방송대는 영국의 개

방대학(Open University·1969년 설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학교육을 원격 방식으로 실현한 교육기관이다.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배움의 의지를 품고 찾아오는 중장년층도 여전히 많다.

–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다면.

“학생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국문과 다닌다고 하니 주변에서 맞춤법 많이 물어보지 않나”고 물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이어 “그런데 배워도 맞춤법 잘 모르는 건 비슷하지 않나”고 물으면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스스로가 맞춤법을 잘 모른다는 걸 안다는 점이란 얘기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학생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공부 시작도, 끝도 겸손함이다. 중장년층 학생에게 이 점을 자주 강조한다.”

–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인 듯하다.

“세대 간 불통과 자기주장만 앞서는 시대엔, 겸손을 가르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겸손해져야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통해 소통을 회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본다. 나는 학생들에게 ‘언덕(言德)’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말로써 덕을 쌓는다는 뜻인데, 남의 얘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 자체가 덕을 베푸는 일인 것 같다.”

– 앞으로 방송대가 나아가갈 방향은.

“방송대에 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용적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학문적 관심으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두 영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첨단 분야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한 새로운 학과,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학 분야의 가치도 지켜나갈 것이다. 특히 인문학은 다른 대학들에선 구조조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인문학을 지켜가는 방송대의 노력과 역할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후연 기자

▶ 1번 ‘여름방학 대입 에세이’에서 이어집니다

- 7.커뮤니티 기여: 지역 사회나 가족에 기여한 경험과 의미를 묻는다.
- 8.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와 느낀 점을 묻는다.

◆ 에세이 작성 전략

▶ 공통지원서

- 1.개성 강조: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1번(배경/정체성)이나 7번(자유 주제)을 선택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2.서사적 접근: 단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되, 자신의 가치관, 성장, 미래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 준다.
- 3.650단어 활용: 단어 제한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감정을 살려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이민 경험”을 주제로 선택했다면, 특정 순간, 예를 들어, 부모의 희생을 깨달은 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 UC에세이

- 1.다양성 보여주기: 4개의 에세이를 통해 리더십, 창의력, 학문적 열정, 도전 극복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다. 각 에세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도록 계획한다.
- 2.간결함: 350단어 제한은 간결하고 직설적인 글쓰기를 요구한다. 불필요한 서술을 줄이고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 3.UC의 가치 반영: UC는 다양성, 혁신, 사회적 기여를 중시한다. 자신의 경험이 UC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여름 방학 준비 전략

여름방학은 대입 에세이 준비에 최적의 시기다. 학업과 과외 활동의 부담이 적은 이 시기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 ▶ 타임라인 설정: 6월에는 주제 분석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알맞은 경험을 정리한다. 7월에는 하루에 한 주제에 집중해 초고를 완성한다. 완벽해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8월에는 초고를 다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한다. 최종적으로 에세이를 완성한다.
- ▶ 일기 쓰기: 매일 10~15분 동안 자신의 경험, 감정, 목표를 기록한다. 자기 성찰을 돕고, 에세이 소재를 발굴하는

데 유용하다.

- ▶ 독서와 영감: 성공적인 에세이 샘플을 읽거나, 자기계발서, 회고록 등을 읽으며 영감을 얻는다. 또한 UCLA나 UC 버클리에 합격한 학생들의 에세이를 참고할 수 있다.
- ▶ 워크숍 및 캠프: 여름방학 동안 대학 에세이 작성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

◆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및 지원

- 학부모는 자녀의 에세이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한다.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 정서적 지원: 자녀가 에세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네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구나”와 같은 격려는 자녀의 자신감을 높인다. 또 에세이 작성은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 야외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장려한다.

- ▶ 실질적 지원: 자녀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의 사진, 가족 여행 기록 등을 공유한다.

또한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필요한 경우 노트북, 프린터 등 도구를 지원한다. 필요하다면 에세이 코치나 카운슬러를 연결해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 경계 설정: 자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격려한다. 학부모가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쓰는 것은 피한다.

장병희 객원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매매

렌트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철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장3,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조선은 ‘절반 섬’, 일본은 그 섬 거느린 ‘본토’로 격상

〈半島〉

서양의 세계 지도가 중국을 경유해 일본에 들어와 보급되기 전까지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일본-중국-인도의 세 거점으로 이루어진 3극 체제 공간이라 할 수 있었다. 즉 불교의 발상지 천축(天竺·인도)이 세계의 끝이었던 셈이다. 19세기 중반에 구미 해양국가들에 항구를 개방하고서야 일본은 비로소 ‘해외’라는 새로운 세계와 직접 만나게 된다. 영어 ‘Overseas’의 번역어에 해당하는 해외는 당시 단순히 ‘바다 밖’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일본에서 몇 개 이상의 해역이나 대양(Ocean)을 건너야 하는 먼 지역, 즉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의미했다. 외국인을 의미하는 일본어 ‘가이진(外人)’이 실제로는 서양인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외’라는 말도 함께 쓰였지만 일본의 인종은 해외를 훨씬 더 선호했다(일본 고베대학 신문기사문고 사이트에서 용례를 검색해보면 해외가 국외보다 8배 넘게 많다). 서양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의 첫발을 뗀 일본인들에게 해외는 장대한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일본의 근대는 해외의 발견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궁벽한 해외에 위치”

해외는 고래부터 존재했던 말이다. 바다 남쪽의 오랑캐라는 뜻의 ‘남만(南蠻)’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대륙에서 볼 때 바다 밖은 아만의 공간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해외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세종실록의 “우리나라는 궁벽하게 해외에 있으므로(我國僻在海外)”와 같은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다 건너’ ‘벽지(僻地)’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거니와, 스스로를 낮춰 대륙과 중원의 변방에 위치시키는 화이(華夷)적 세계관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건너온 한자어 해외는 이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며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1900년대에 발행된 구한말의 신문기사를 보면, 국경에서 육지로 이어진 연해주나 하얼빈 같은 곳조차 국외가 아닌 해외로 지칭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한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외는 국외보다도 사용 빈도가 훨씬 높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1920~1999)에서 검색해보면 전자는 3만5367건, 후자는 3836건이다. 해외가 9배 정도 많이 사용되는 셈이다. 중국어의 경우, 해외도 사용되지만 ‘경외(境外)’, 국외가 일반적이다. 경외라는 단어에서 14개 나라와 국경을 두고 있는 대륙 국가의 면모가 드러난다.



1 오하라 기사부로의 ‘세계 유럽·아시아 외교지도’. 1904년 미국에서 발행된 ‘문어 지도’를 일본어로 번역해 제작한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는 러시아를 문어로 묘사했다. 문어 다리 하나는 요동반도로 뻗어 있고, 중국의 소맷자락에 매달려 있는 한반도를 갓 쓴 노인으로 표현했다. 2 17세기 일본의 승려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남선부주도’(1698). 맨 오른쪽이 일본, 가운데 아랫부분이 인도인데, 중국에 비해 크게 그렸다. 3 우타가와 요시토라(歌川芳虎)가 그린 ‘만국명소총람 프랑스 파리스’. 유럽에서 들어온 동판화를 토대로 상상해 그린 파리의 풍경이다. 파리를 항구도시로 그렸다.

사진 윤상인

고대 한국의 역사는 만주를 중심으로 한 북방에 기원을 둔다. 기마 문명의 남하를 경계하면서도 북방영토를 개척·확장하려는 노력은 고려·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북방의 광활한 대륙은 인적·물적 이동의 주요경로였다. 그런데 영토의 3면을 둘러싼 바다와는 이렇다 할 관련을 맺지 않았던 대륙지향 국가의 후예들에게 해외라는 미지의 공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문명이 넘나드는 바다를 무대로 국력을 키워온 일본은 북방의 청과 러시아를 제압했다. 대륙은 누습과 정복의 땅이었고, 바다는 개명과 진취의 공간이었다. 일본을 거쳐 들어온 해외, 반도와 같은 개념은 대한제국기 한국인들의 국토지리에 대한 인식, 나아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일제가 민족정기를 훼손하고자 전국의 고산준령 요소에 쇠말뚝을 박아놓았다는 이른바 풍수침략론이 이목을 끈 적이 있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지형상의 정체성 따져 호명하면 식민주의 통치에 유리하다 판단

‘본토’라 칭한 대만·오키나와까지 일본 제국의 ‘내해’ 영역으로 치부

내해 바깥의 해외는 서양을 의미 가능성의 공간으로 해외 받아들이

동원된 공무원들이 험한 산지를 누비고 다녔지만 측량과 안전장치 목적으로 바위에 박힌 쇠꼬챙이 수 백개를 수거한 것이 전부였다. 근대국가가 정색을 하고 연출했던 히스테리성 피해망상극으로 기억될 사건이다. 반도 음모론도 빼놓을 수 없다. 한반도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제헌헌법 4조 영토조항 제정 시에도 한반도라 할 경우 일제에 의한 비



하의 의도를 수용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음모론자의 주장에 의하면 ‘반쪽 섬’이라는 뜻의 반도는 ‘페닌슐라(Peninsula)’의 일본어 번역이 거니와 이 단어는 조선을 “일본 열도(列島)에 편입시켜 속도(屬島)로 삼아 속국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인의 저의가 짙게 깔린 용어”라는 것이다. 근거도 논리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일본인·중국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결과가 있다.

라틴어가 어원인 ‘반도’는 중립적 표현

반도라는 단어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일본의 난학(蘭學)자들에 의한 네덜란드어 지리서 일본어 번역본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1862년 일본 최초의 영일사전(『英和対訳袖珍辞書』), 이어서 1869년에 홍콩에서 출판된 영중사전(『英華字典』)에 반도로 등재되었다. 대부분의 서양 언어권에서 페닌슐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의 섬’ 같은 지형이라는 뜻의 단어가지만 특이하게도 독일어와 더불어 네덜란드어에서는 라틴어 어원을 자국어로 풀이한 단어 ‘반절 섬(halfeiland)’이라는 단어로도 유통된다. 에도시대의 난학자들은 이를 반도(半島)로 직역했던 것이다. 거의 섬에 해당하는 지형이 반절 섬이 되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정착한 이유는 번역의 기점언어가 우연히 네덜란드어였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에 출판된 중국의 지리서에는 페닌슐라의 번역어로 ‘침지(枕地)’ ‘토고(土股)’가 등장한다. 영어단어 자체에 내재된 섬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베개 형상의 땅’ ‘몸에서 뻗어나간 허벅지 모양의 토지’라는 뜻으로 번역한 것은 명백히 대륙 국가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국도 일본에서 건너온 반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1895년 시모노세키에서 체결된 강화조약에 “요동반도를 할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중에 구룡반도·산둥반도·요동반도가 서구열강에 점유된 것은 해양세력이 바다로부터 접근하기에 유리한 지형 때문이지 그것이 반도라 불려서가 아님은 자명하다.

근대지리학의 도입과정에서 창출된 반도라는 개념은 일본의 해외팽창 과정에서 정치적·지정학적 개념으로 바뀌어 갔다. 예를 들면 『고종실록』의 1904년 2월 23일 첫 번째 기사에는 “일본은 반도의 존망이 그 안위와 관계된다고 여겨”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보통 명사인 반도가 여기에서는 조선반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유럽 국가 사이에서 페닌슐라는 스페인·포르투갈이 차지하는 이베리아 반도를 특정하는 말이었다. 물론 부정적인 맥락에서이다. 유럽의 변두리에 위치하면서 이슬람세력에 800년간 지배당한 지역에 대한 편견의 시선도 배어 있었다.

제국의 지리적 구성

일본은 바다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지리개념을 응용하고, 때로는 창출하기도 했다. 류큐(오키나와)와 대만을 복속하고 ‘본토(本島)’라 칭했다. 1900년대부터 조선은 반도가 되었다. 본토와 반도는 바다 건너에 있었지만 일본어 해외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일본제국의 ‘내해’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국 일본의 본원인 일본열도는 어떻게 칭했는가. 내지 또는 본토였다. 이 두 단어에 섬을 환기시키는 요소는 전무하다. 외지의 영토에 부여된 섬 또는 반 섬으로서의 도서(島嶼) 정체성은 결과적으로 일본열도의 섬으로서의 지리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민족 정체성 대신 지형상의 정체성으로 호명하는 것은 균질한 제국의 공간을 창출하고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지인·반도인·본토인이라는 호칭이 활용되기도 했다.

지리용어의 번역에 있어서도 도서 국가인 일본은 대륙 국가인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럽인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둘로 나누어 옥시던트-오리엔트, 또는 웨스트-이스트로 불러왔다. 중국어 번역으로는 서방·동방이 된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동양으로 번역해 사용해왔다. 중국에도 오래전부터 동양·서양이라는 표현은 존재해왔으나 별도의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동양’은 동쪽 바다였고, 동쪽에 있는 일본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육지로 이어져서 문명의 교류가 활발했던 두 지역을 두고 일본인들이 왜 해역(洋)을 의미하는 서양·동양으로 표현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거론한 일본인들의 도서(島嶼)적 지리관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할 듯하다.

윤상인 전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잇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치밀한 계획이 학자금 수혜액 결정 사전설계와 대학별 맞춤 전략 필요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블리스 정의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및 진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의 대학 진학 준비에 전략적으로 응용한다면, 재정보조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자주 인용되는 블리스의 정의는 “모든 일은 계획이 치밀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진리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당연함 속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며, 성공의 차이는 결국 이 실행 여부에서 갈리게 된다.

계획을 세우고 변수에 대한 대비책
을 마련하면 유비무환의 자세가 자신

감으로 연결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가 자녀가 진학한 대학으로부터 기대보다 적은 재정보조를 받아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다. 그 공통된 이유는 블리스 정의의 실천 부족이다. 누구나 자녀가 충분한 재정보조를 받기를 원하고 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무엇 때문인지,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설계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보조에서 수입은 크게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된다.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총소득과 조정총소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며, 부양자 적용 여부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용어와 개념들을 정

확히 숙지해야 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학부모의 경우 스케줄 K-1(Schedule K-1)이나 배당 소득, 기타소득이 총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 콤파니나 C 콤파니를 활용한 법인 트러스트 설계를 통해 기업에서 세금 공제를 유도하고, 동시에 이 공제가 학자금 공식에 적용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은퇴연금을 적립하면서 가정의 수입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적격 직원을 대상으로 세금 공제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이는 고도의 설계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흔히 시도하는 개인은퇴계좌나 직장인 은퇴계좌 401(k) 적립금 증가는 재정보조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택이 FAFSA나 CSS Profile 평가 공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자금 재정보조와 관련된 변수들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갖춘 전문기업이나 대학별 재정보조 시스템과 공식에 정통한 경험자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학별 재정보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이해는 향후 이의제기(Appeal)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감정적 요청이 아니라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어필의 핵심이다.

재정보조는 수입과 자산을 각각 다른 시점에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준비시점 역시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시점부터 재정 구조를 점검하고 설계를 시작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이는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다 이러한 설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학년별로 점진·보완되는 ‘지속적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

재정보조 계산은 총 학비에서 학생 보조지수를 뺀 재정보조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금액에 대해 대학이 얼마나 높은 비율로 무상 또는 유상보조를 제공하는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재정보조 내역이 평균 이상인지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율과 자녀가 받은 실제 지원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결국 재정보조 사전설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학부모들이 불리시정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이러한 사전설계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실패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실천 없는 블리스는 결국 불편한 진실일 뿐이며, 이를 뛰어넘는 구체적 실천이 자녀의 미래와 가족 재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에듀 포스팅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

AI 활용, 브레인스토밍까진 OK
최종 글은 내 생각과 목소리로

세대에 따라서 사용 빈도에 차이가 나겠지만, “인공지능(AI)”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AI는 입시 준비의 일상적인 도구가 되었다. 가법계는 에세이 아이디어의 브레인스토밍, 문장을 다듬는 데 도움을 받고 나아가 인터뷰 과정에서의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다. 효율성과 시간 절약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학생 개인의 사고력과 진정성을 빼뜨릴 수 있기에 에세이에 있어서 인위적인 부자유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명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훈련을 통해 과도하게 다듬어진 글, 인위적인 표현, 비인격적인 문장을 감지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이미 AI 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라운 대학교는 한발 더 나아가 “지원자가 지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이렇듯 대학도 AI를 사용하며 입학 사정의 과정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있으며 AI 사용은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역시 점점 더 입학 사정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학들은 좀 더 세밀한 에세이의 어조, 복잡성, 감정의 진정성 등을 분석하고 표절 여부나 문법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데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 2024년 포브스의 “College Admission: The AI Revolution”이란 기사에 따르면 조지아 공대 입학 사정관인 릭 클라크는

“AI가 수천 시간의 인력을 절약하고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의 가족에게 더 많은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체플린 캠퍼스 역시 “기초 문법 및 작문 평가를 위해 AI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 입학 결정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내려진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대학들도 점점 더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학년이 될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시작되는 에세이 작성을 위해서 좀 더 신경해야 할 것 같다.

학생들은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나?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학생들의 경
 우 AI 사용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AI를 어떻
 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자.

1. AI는 보조 도구로만 사용하라

보통 학생들은 에세이의 초안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AI는 문법 수정 과정과 에세이 초안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글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문장으로 정리해야 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꼭 들어가야 한다.

2. 자신만의 진짜 스토리텔링을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 대학은 지원자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이 담긴 글을 선호한다. 즉 “무엇을 했는가?”보다 “왜 했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인간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에세이는 어떤 검증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

3. AI보다 사람과 소통하라

에세이 작성 과정 시 AI 활용보다는 영어 선생님, 멘토, 또는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얻을 수 있다. 에세이를 여러 사

람에게 읽히고 그 반응과 조언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가 진짜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4. 대학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고 기술의 진화를 이해하라

대학들도 학생들 못지않게 관련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원하는 대학들의 AI 관련 정책이나 입학 관련 정보가 특히 있는지 (예: 브라운 대학의 AI 사용 금지)를 미리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며 지원 시 성적, 특별활동, 전공 관련 등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은 학생이 해당 대학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시대의 대학 입시는 분명 새로운 도전이며 AI는 입시 환경을 바꾸고 있지만 결국 대학은 사람을 뽑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학생이 대학의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은 시대의 입시에서 석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조은아씨! 조은신부! 조암씨!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주택리스팅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리스팅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이강인 득점포 가동... PSG, 세계 정복 첫 걸음

클럽 월드컵 AT마드리드 4-0 제압
이강인, 페널티킥으로 218일만에 골
유럽 챔피언 다운 기량... 4관왕 도전
울산, 내일 오전 조별리그 첫 경기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의 ‘골든보이’ 이강인(24·사진)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강인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스페인)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이강인은 32개국 체제로 개편된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한 한국 선수 1호로 기록됐다.

매년 대륙별 클럽 챔피언만 출전해 우승팀을 가리던 이전과 달리, 이번부터 클럽 월드컵은 32개 팀이 참가하는 4년 주기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바뀌었다. 이번 대회에 한국에서는 이강인을 비롯해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 박용우(32·알아인), 김기희(36·시애틀 사운더스) 등 해외파 선수와 K리그 클럽인 울산 HD가 출전한다.

이날 벤치에서 시작한 이강인은 PSG가 2-0으로 앞선 후반 27분 파비앙 루이스(29)와 교체 투입됐다. 후반 33분 AT마드리드 클레망 랑글레(30)가 퇴장당하면서 PSG는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쥐었다. PSG는 후반 42분 세니 마울루(19)의 추가골로 3-0까지 격차를 벌렸다. PSG는 후반 추가시간 상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이강인이 원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만들었다.

이강인이 소속팀 PSG에서 골 맛을 본 건 지난해 11월10일 프랑스 리그1 앙제전 2골 이후 218

일 만이다. PSG는 AT마드리드를 4-0으로 대파했다. 당초 이 경기는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 랭킹 5위(PSG)와 14위(AT마드리드)의 대결인 만큼 접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승부는 PSG의 압승으로 끝났다. 2024~25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와 리그1,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우승으로 트레블(3관왕)을 달성한 PSG는 클럽 월드컵 정상까지 4관왕을 바라보게 됐다. PSG는 아직 클럽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없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같은 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벌어진 C조 1차전에서 오클랜드시티(뉴질랜드)를 10-0으로 꺾었다.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 여파로 결장했다. 자말 무시알라(22)가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킴슬리 코망(29)·마이클 올리세(21)·토마스 뮐러(36)가 두 골씩 터뜨렸다.

뮌헨의 베테랑 공격수 뮐러의 골은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는 그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대회다. 유스 시절을 포함해 뮌헨에서만 25년간 뛴 뮐러는 2024~25시즌을 마친 지난 달 계약도 끝났다.

하지만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1개월 단기계약을 맺었다. 뮐러는 이날까지 뮌헨 소속으로 743경기에 출전해 247골 273도움을 기록했다. 뮌헨 구단 통산 최다 출전이다. 이 기간 분데스리가 12회, 독일축구협회컵(DFB 포칼) 6회, UEFA 챔피언스리그 2회, 클럽 월드컵 2회 등 숏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한편, 이날 열린 또 다른 조별리그에서 A조 파우메이라스(브라질)와 포르투(포르투갈)는 0-0으로 비겼고, B조 보타포구(브라질)는 시애틀을 2-1로 꺾었다.

피주영 기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클럽 월드컵 첫 경기 페널티킥 찬스에서 원발로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리는 파리생제르맹 이강인.

[연합뉴스]

케인 막아선 미드필더, 정체는 코카콜라 영업맨?

오클랜드시티, 뮌헨에 0-10 완패
선수들은 교사·창고 관리자 등 투잡

0-10. 오클랜드시티(뉴질랜드)는 16일(한국시간)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하릴없이 무너졌다. 슈팅 수 1대31, 볼 점유율(%) 28대 72 등 오클랜드시티는 크게 밀렸다. 오클랜드시티 골키퍼 코너 트레이시 선방이 아니었다면 더 큰 점수차가 날 뻔했다. 오클랜드시티는 오세아니아축구연맹(OFC) 최강 클럽팀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미프로 격인 아마추어팀이다.

골키퍼 트레이시는 평소 동물약품 창고 관리자로 일한다. 수비수 조던 베일은 학교 교사, 주장 겸 미드필더 마리오 일리치는 코카콜라 영업사원이다. 배달 일을 하는 공격수 해리스 켄은 지난달 FIFA와 인터뷰에서 “택배를 위



10-0으로 벌어진 바이에른 뮌헨-오클랜드시티 전 스코어를 보여주는 전광판.

[연합뉴스]

해 문을 두드리면 개들이 미친 듯이 쫓아온다. 다음 달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해야 하는데, 이중생활 같다”고 말했다. 수비수 네이션 로보는 대학생이라서 대회 기간에 온라인으로 시험도 친다. 다양한 직장인 선수들이 휴가를 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오클랜드시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 주급이 12만원. 뮌헨 공격수 해리 케인 주급(7억4000만원)의 6200

분의 1이다. 선수단 시장 가치는 오클랜드 시티가 72억원, 뮌헨이 1조3670억원이다. 오클랜드시티는 2021~24년 OFC 클럽 랭킹 1위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호주가 2006년 OFC를 떠나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이 되면서 호주 프로축구 A리그 소속인 뉴질랜드 프로팀 오클랜드FC와 웰링턴 피닉스도 AFC 소속이 됐다. 오클랜드시티가 어부지리를 본 셈이다.

FIFA는 이번 대회에 ‘세계 최고’ 32개 클럽이 참가했다고 홍보했다. 전 세계 클럽 랭킹 6위 뮌헨과 5047위 오클랜드시티의 맞대결은 FIFA와 클럽월드컵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인 셈이다. 외신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미스매치 중 하나” “열정은 남다르지 않았다”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민 기자

강등권 해매던 전북을 선두로, 포엿이 쓴 반전 드라마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거스 포엿(58·우루과이) 감독이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는 ‘이달(5월)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전북은 5월에 치른 7경기에서 5승2무로 무패행진을 했다. 기간

을 좀 더 넓히면 전북은 최근 14경기 연속 무패(10승4무)를 기록 중이며, K리그1 선두(11승5무2패·승점 38)다. 2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32)과의 승점 차가 6이다.

K리그1 최다 우승(9회)의 전북이지만, 사실 지난 시즌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밀렸고, 가까스로 강등을 면했다. 그렇다고 올해 선수가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콤파뇨

와 송범근을 빼면 새 얼굴이 많지도 않다. 감독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미 지난 시즌 내내 거둔 10승을 넘어 시즌 11승이다.포엿 감독은 지난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최종후보 3인에 들었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매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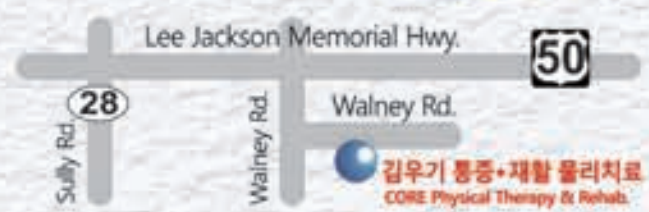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6월

구인

광고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무경험자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0명
-금요일 주방에서 보조 하실분 0명
443-386-0515

엘리컷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팅: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팅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폴/파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골든 듀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방 렌트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한 싱글홀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방렌트, 넓은 이중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홀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달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중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할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질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팅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엘리컷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 신촌 설령탕에서 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풀&파트타임)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아 주머님, 카운터 캐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임, 캐슈페이 가능
571-352-4938/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플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중앙일보

▶571-991-4172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
파/폴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센터빌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 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 -9시반까지 8세, 9세 아
이들 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
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AVC, Fenced back 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스런 나무마루, Fence있는 뒷마당, 남
향, 밝은집,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 마루, 넓
은 리빙룸 \$1,600 (물값&가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
실,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
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부엌,
새화장실, 새나무마루, 새페인트, 새창문,
Costco, Walmart와 가까운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센터빌 극장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료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취사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료 \$1,100
▶301-928-4125

애난데일 중심가 싱글홈 방 2 렌트, 부엌/화
장실/입구 별도/주차 편리
703-395-4380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료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브리스 합니다. 방1, 풀베스 1, 셰어
키친, 파킹티켓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인터넷유료
443-631-7866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첼트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1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역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Stafford 싱글하우스 \$71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
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텍, Stone Patio, 새
단지
▶703-813-8949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
엣,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이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8층, 맥클
린 앤드유닛, 시원한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3.5, 랜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2.5, 랜트수익 \$3,000
3.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랜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교체, 계단 없슴.
2. 매나서스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 병

원,레스토랑,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치킨가게 양도 (한국 귀국)
1920 sf 현재 영업중 (알렌사드리아 물)
주방 일체, 치킨 가게와 다른 업종도 가능
재정상태양호 하신분
703-338-1636 / 646-415-2347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제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
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
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TOYOTA RAV-4 2013 Years 흰색 115K
Haul Master Transmission Oil 교환 New
Tires 상태양호 One Owner \$14,750
▶703-525-2929

소니 카메라-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 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와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와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
인터넨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
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인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가솔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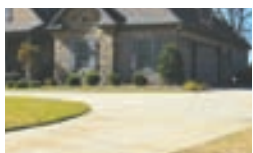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데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계단
워크웨이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 / 디스포저

◆워터히터 / 물새는것

◆하수막힘 / 변기교체

◆셉퍼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텝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역류장치(Backflow)

●MD Fire 스프링클러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on: We’re not going to the beach tomorrow until you clean your rooms.
단: 너희들 내일 방청소안 하면 바닷가에 안 간다.
Keith: Dad can we clean them tomorrow after we go to the beach?
키스: 아빠 내일 바닷가 갔다 와서 청소하면 안 돼요?
Don: No. I’ve told you time and again to keep them clean and you don’t.

단: 안 돼. 청소 안 하면 안 간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Allan: You can check out my room. It’s clean.
앨런: 제 방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깨끗해요.
Don: You have to help your mother out around the house.
단: 너는 엄마가 집안 청소하는 거 도와주려야지.
Keith: My room is not so messy.
키스: 제 방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Don: It looks like a bomb hit it.
단: 폭탄 맞은 것 같더라.
Allan: It does Keith.
앨런: 키스 정말 그래.
Keith: Oh be quiet Allan.
키스: 앨런 조용히 해.
Don: Get in there and clean it Keith. Then I’ll take you to the beach tomorrow.
단: 키스 방에 가서 청소해. 그럼 내일 바닷가 데

time and again; 여러 번, 되풀이해서

(Don is talking to his sons Keith and Al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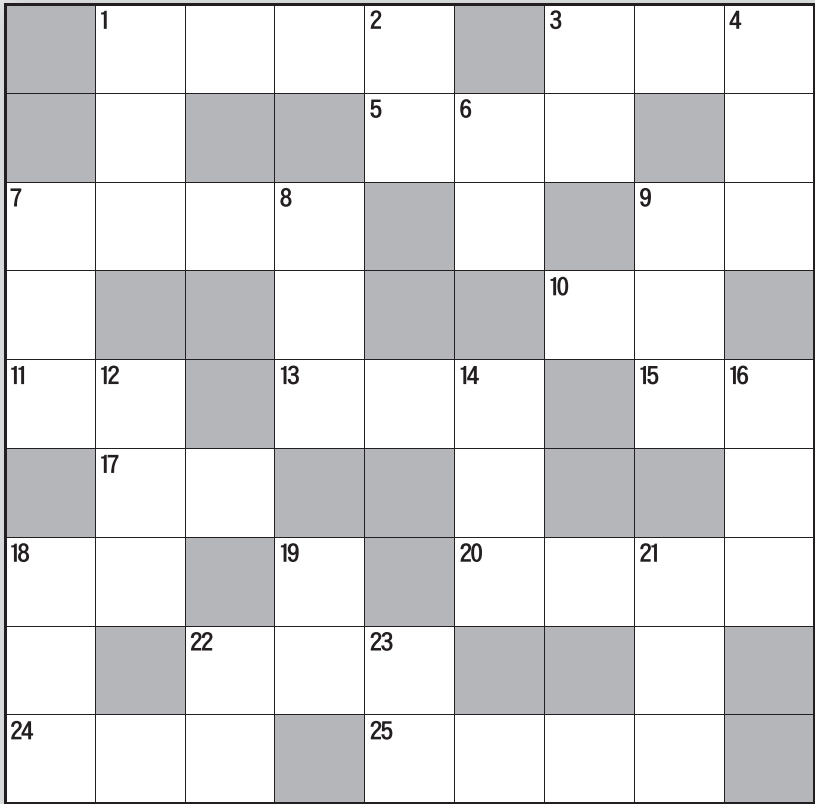
(단이 두 아들 키스와 앨런과 이야기하며~)

려갈 테니까.

기억할만한 표현

- ▶ check out (something): 확인하다. (also check something out).
- “Check out that car. What kind is it?” (저 차 좀 확인해봐. 어떤 차인지.)
- ▶ help (someone) out (with something): 돕다. 거들다. (also help out someone).

날말퀴즈



가로열쇠

(1)말 속에 빠가 있음. 예사로운 말 속에 깊은 속뜻이 숨어 있음. □중□□ (3)동양화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그린 그림. 고결함을 상징으로 하는 문인화의 대표적 소재이다 (5)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앞으로의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하여 점을 치는 일. 시어머니는 아들이 실직한 뒤에 여러 군데로 ~를 다녀 보았다 (7)소나 돼지의 여린 뼈.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는 ~를 씹는 맛도 별미이다 (9)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 (10)아내의 짝. ~은 정성스럽게 솜을 짜서 아내의 입에 넣어 주었다 (11)좋은 징조의 꿈 (13)귀지를 파내는 기구 (15)세수를 한 뒤에 또는 땀을 닦아낼 때에 필요하지요 (17)미국의 돈 (18)뺨. ~를 때리다 (20)산과 내와 풀과 나무. 자연. ~ 속앞이 난다/구경 가기가 열화 반갑다/다/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있는 파다가 열화 입에 물어/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강권순) (22)누에가 고치를 틀고 변하여 된 몸. 길거리 간식의 대표 식품 (24)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댄 물체. 자석 (25)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일의 ~은 대강 다음과 같다. □초□□.

세로열쇠

(1)옛날 무기의 하나로 초승달(월) 모양으로 생긴 큰 칼. 무당은 머리에는 붉은 갓을 쓰고, 왼손에는 삼지창, 오른손에는 ~를 들고 있었다 (2)바느질할 때 바늘귀를 밀기 위하여 손가락에 끼는 도구 (3)인도의 여성들이 입는 민속 의상. 재단한 의복이 아니고 한 장의 기다란 견포(絹布) 또는 면포를 허리에 감고 어깨에 두르거나 머리에 덮어쓰워 입는다 (4)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6)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꾸지람 (7)폭이 좁은 호젓한 길 (8)뼈의 날개. 독배기 위로 굽곡한 감자와 함께 비죽하게 돼지 ~가 나와 있다 (9)우두머리 목수 (12)총각이 죽어서 된 귀신 (14)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지고 나면 암석만 뼈(골)처럼 드러나므로 겨울의 금강산을 이르는 말 (16)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 (18)노름에서, 가지고 있는 화투의 갯수가 1임.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처지에 있는 사람 (19)항문 주위를 세척하는 데 쓰이는 변기 (21)사람을 부르는 신호로 울리는 종 (22)전을 부칠 때에 쓰는 무쇠 그릇 (23)기사를 쓰는 사람.

스도쿠

			9		8		
8		7		2			9
1		5			4	7	6
		2		5	8	9	7
3				9			8
	8				2		
	2	1			3	5	
			8		3		4
			2			9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7	6	9	5	1	2	8	3	4
4	2	1	3	7	8	9	5	6
8	5	3	6	4	9	1	2	7
1	4	2	9	3	7	6	8	5
9	8	5	2	6	1	4	7	3
3	7	6	8	5	4	2	1	9
2	9	7	4	8	3	5	6	1
6	3	4	1	2	5	7	9	8
5	1	8	7	9	6	3	4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목회 5년이상 경험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본교단 P.I.F. 1부 (서식은 www.pcusa.org에서 다운로드)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1부 (목회 경력, 가족사진 등 포함)
목회비전 1부 (신앙 간증문, 목회 동기 및 목회 철학, 교회 사역 등 포함)
학위 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 1부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제출처
Hope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접수마감
2025년 6월30일(월) 23시 59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6년 기간 위임 후 재청빙

문의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Attn: 청빙위원장)

한소망교회 청빙위원회  미국 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살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헷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를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Since 1874
ADT
877.373.0265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